

“전국 최초 광주형 가사수당 제도 추진 박차”

광주여성가족재단, 사업계획 발표 “필수노동 재평가 공론화 필요” 내일 시의회와 방안 모색 토론회 여성사 기반 기술 채록 사업 지속

광주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 민선 8기 광주시 공약 중 하나인 ‘광주형 가사수당’ 제도에 본격 나섰다. 올해 가사수당 제도가 정착되면 전국 최초 모델이 된다.

재단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재단은 가사수당 제도와 관련, 도입 타당성 및 추진방안 연구를 통해 올해 내

제도를 실현하겠다는 복안이다.

김경례 재단 대표이사는 그동안 저평가된 가사노동에 대해 지적했다.

김 대표이사는 “가정 내에서 수행하는 가사노동(출산, 돌봄노동 포함)은 가족의 생존과 재생산,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필수노동이다”며 “가족 구성원의 생산 능력 제고, 국민 재생산에 기여한다는 생산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저가치 노동으로 평가됐다. 가사노동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가치에 대해 공론화와 재평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재단은 가사수당 실현을 위해 먼저 광주시민 1000명 대상으로 가사노동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광주시의 주요 현금성 지원 제도와 수혜계층을 분석한 뒤 광주형 가사수당 제도의 도입 방안을 설계할 방침이다.

여론 수렴을 위해 광주시의회와 함께 토론회도 연다.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방안 모색’ 토론회는 7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진행되며 △가사수당 필요성 △광주시수당제도의 수혜층 분석 등의 내용이 논의된다.

김 대표이사는 “가사노동이 경제적, 공익적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 따져 묻는 부정적 여론도 있다. 하지만 가사노동은 결국 가정 내에서 누군가는 해야 할 필수노

동이다”며 “가사노동의 가치를 사회보장적 측면의 수당제도로 실현하려 한다. 이를 통해 가사도우미 등 비정규직 영역의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각종 수당 혜택에서 제외된 중장년층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단은 지난해 방직공장 여성노동자를 조명해 주목 받은 ‘여성사 기반 기술 채록 사업’도 지속한다.

광주 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관련 콘텐츠 아카이빙 구축, 생애기술사 단행본 발간, 집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광주여성사를 기반으로 한 체험형 역사문화콘텐츠를 개발한다는 포부다.

여성 관련 현안도 들여다본다.

재단은 실질적인 설문·면접조사를 통해 광주지역 스토킹 피해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스토킹 실태조사뿐 아니라 △가족 인식조사 △기후위기 취약가족 지원 방안 △성인지 통계 △여성 일자리 실태 △돌봄공동체 실태 등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이밖에도 재단은 올해 △북카페 ‘은새암’ △여성전시관 ‘Herstory’ 등 문화공간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광주여성가족재단이 ‘민선8기 광주시 공약’ 중 하나인 ‘광주형 가사수당’ 제도에 본격 나섰다. 올해 가사수당 제도가 정착되면 전국 최초 모델이 된다. 클립아트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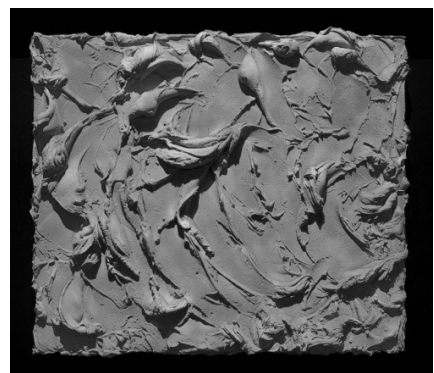
내면의 불안과 마주하는 ‘신황제 개인전 LAYER’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이미지 중첩 마티에르 강조

‘불안’이라는 정서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는 ‘신황제 개인전 LAYER’가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에서 오는 4월2일까지 열린다.

신황제 작가는 여러 텍스처 이미지를 겹겹이 중첩하는 형상을 통해 인간의 불안한 심리상태와 감정에 지배받지 않는 무의식, 무감각한 모습을 표현해왔다. 이번 개인전에서는 구체적인 묘사 없이 강렬한 색채와 거친 붓질로 화면을 구성하고 두터운 물감의 마티에르(화면의 재질감)를 강조한 회화 작품 20점을 선보인다.

신 작가는 캔버스를 통해 사회적 고립, 경쟁, 폭력 등에 억압된 현대인의 감정을 표출하고자 했다.



신황제 작 'layer 5' 판넬에 핸드코트/아크릴/53×45.5cm/2021. 광주문화예술회관 제공

흥미로운 점은 ‘불안’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어둡고 무거운 색채나 극렬한 이미지를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밝고 선명한 색채를 사용했다.

이는 가볍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고 눈

에 보이는 외형만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의 시각을 비판하면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광주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다소 무거운 주제에 오히려 가볍고 재기 넘치게 표현한 작품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소하고 공감을 이끈다”며 “관객들이 전시회를 통해 내면의 ‘불안’에 마주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작가는 전남대학교 미술학과(한국화 전공)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졸업 및 현재는 박사과정 재학 중이다. 개인전 10회 및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예술회관(062-613-8357)으로 문의.

도선인 기자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입장권이 광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됐다. (재)광주비엔날레는 올해 시행된 광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입장권이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예매 입장권은 고향사랑기부 10만원으로 제공되는 답례품이다. 답례품은 예매 입장권 어른 2장과 어린이 2장으로 구성됐다. 기부자들은 사전 판매가 종료되는 공식 개막일인 4월 7일 이후에도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권을 제공받을 수 있다.

4월6일까지 판매되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예매 입장권은 어른 1만2000원, 청소년 5000원, 어린이 3000원으로 행사기간 내 현장 판매보다 최대 40% 가량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는 “기부자들이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입장권을 선택할 경우 세계적인 미술축제인 광주비엔날레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 환원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광주비엔날레도 지역과 상생하면서 광주를 세계 속에 알리고자 더욱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제14회 광주비엔날레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soft and weak like water)’는 오는 4월7일부터 7월9일까지 94일 간 개최되며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비롯해 국립광주박물관, 무각사, 예술공간 집, 호랑가시나무아트폴리곤 등이 전시공간으로 활용된다.

도선인 기자

남도관광센터 아트마켓 입점상품 공모

광주관광재단 16일까지 공예·문화 상품업체 대상

광주관광재단은 남도관광센터 아트마켓에 신규 입점할 공예·문화 상품 업체를 오는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남도관광센터 아트마켓에서는 광주의 관광자원을 소재로 개발한 다양한 디자인 상품들을 판매한다. 광주관광재단은 매년 공모를 통해 새로운 상품을 입점시키고 있다.

이번 공모는 광주시에 소재하고 디자인 및 공예 상품, 공산품 등을 제작하는 업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시장 경쟁성과 작품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된 상

품은 올 한 해 남도관광센터 아트마켓에 입점 판매된다.

입점 희망업체는 광주관광재단 누리집(www.gjto.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입점을 원하는 상품과 함께 16일까지 남도관광센터(전일빌딩 245, 2층)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김진강 광주관광재단 대표이사는 “광주를 기억할 매력적인 아트상품은 여행자의 여행 경험 및 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특화 우수 디자인 공예·문화 상품 발굴과 육성을 통해 광주 관광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영화로 들여다보는 아시아 문화 독서여행

ACC ‘아시아와 극’ 도서추천 아시아 영화 100 등... 음악관련 책도

영화를 통해 아시아 문화를 들여다보는 특별한 독서 여행이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ACC 도서관 도서추천서비스(북큐레이션)의 3·4월 주제를 ‘아시아 영화와 극’으로 정하고 아시아 권역 영화와 극 이야기를 다룬 문화예술 도서 40여권을 소개한다. 이를 위해 ACC는 관련 책을 선별해 오는 4월30일까지 도서관 이벤트 홀에서 전시를 지속한다. 세계의 관심과 주목을 받는 한국 영화



는 물론 중국, 인도, 일본, 이란, 대만 등 아시아 권역의 영화를 책으로 만나는 기회다. 먼저 △아시아 영화 100 △한중일 영화 100년사 △아시아 영화의 탄생을 통해 아시아 영화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볼 수 있다. 또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영화

를 찍으며 생각한 것 △박찬욱의 오마주 △왕가위(사진) 등을 통해 아시아 대표 영화감독이 직접 전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 또 △영화로 떠나는 동아시아 기차 여행 △인도, 영화로 읽다 △도시의 확장 and 변형: 문학과 영화편은 영화라는 낯설고도 친숙한 거울로 아시아 국가의 문화 풍경을 조망한다.

ACC 영화 콘텐츠뿐 아니라 음악 콘텐츠도 활용한다. ‘이토록 재미있는 음악 이야기’와 ‘그럴 때 우린 이 노래 듣지’, ‘나는 음악에게 인생을 배웠다’ 등은 거대한 음악의 세계로 떠나는 길라잡이다. ‘음악 인류’와 ‘음악 본능’은 인간이 음악에 빠져드는 근본적인 물음을 제시한다.

도선인 기자